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59호 / 11월 24일

중국 東北 老工業基地 진흥전략

1. 개요

- 최근 중국정부는 東北 3省의 낙후된 공업기지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.
- 溫家寶 총리는 지난 5월부터 8월에 걸쳐 동북지역을 직접 순방하고 동북지역 공업기지 진흥을 서부개발사업과 함께 양대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음.
- 당 제16기 3중전회에서는 국유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바, 이를 동북 노공업지역의 국유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.
- 이러한 가운데, 중국정부의 정책 입안에 영향력이 큰 저명 경제학자가 보다 근본적으로 동북 노공업기지의 자생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비교우위에 입각한 발전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주목됨.¹⁾

1) 본 브리핑 내용은 북경대학교 중국경제연구센터 주임인 林毅夫 교수의 견해를 정리한 것임.

2. 동북 3성 공업기지 낙후요인

□ 동북 3성은 중국의 전통적인 공업기지로 개혁개방 이전 중국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.

- 중국정부는 건국 이후 신속한 공업 발전을 위해서 자본집약형 중공업 우선발전이라는 주월전략을 추진하였고, 동북 3성을 그 전략적 기지로 집중 육성하였음.

- 중앙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동북 3성은 줄곧 전체 중국경제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였음.

o 1978년 동북 3성의 1인당 GDP 규모는 3대 직할시에 이어 네 번째를 기록함.

□ 그러나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오히려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,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였음.

- 정부는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, 상품가격을 통제하여 이윤을 보장하고, 인력배치나 자원배분에서 국유기업을 집중 지원하였음.

- 정부의 가격 왜곡과 경영 간섭은 기업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 왔음.

□ 개혁개방 이후 경쟁 압력이 심화되면서 동북지역에 밀집된 국유기업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음.

- 2001년 요녕성, 흑룡강성, 길림성의 1인당 GDP는 각각 전국 8위, 10위, 14위로 떨어졌음.

- 개혁개방 이후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은행대출로 전환하고, 상품가격이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은 이윤 창출에 실패

하게 됨.

- 이 밖에도 퇴직 노동자에 대한 양로의 의무, 강요된 잉여노동력 고용, 정부의 경영간섭 등은 모두 국유기업에 정책성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유기업의 자생력을 더욱 떨어뜨렸음.

3. 동북 공업기지 진흥을 위한 선결과제

□ 동북 노공업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유기업이 떠안고 있는 정책성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시급함.

- 국유기업이 다른 소유제기업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경영능력에 따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시스템을 만들어야 함.

□ 무엇보다도 국유기업이 자생능력을 배양토록 해야 하는바, 이를 위해서는 업종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식이 요구됨.

- 첫째, 국방안전에 필수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, 경영과 발전을 책임지며,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함.

- 둘째,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자기업과의 합자 혹은 외국증시 상장 등의 방식으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해야 함.

○ 이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교우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바, 동북지역의 자동차 제조기업은 이러한 부문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.

- 셋째, 생산제품이 낙후되어 시장점유는 적지만 생산공정상의 우위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집약형 제품생산기업으로 전환하여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해야 함.

- 四川省의 長虹, 重慶省의 嘉陵 등의 기업은 이러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대표적인 기업임.
- 넷째, 생산제품의 시장이 이미 없어지고, 생산공정이나 관리상의 우위를 상실한 기업의 경우 파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음.

4. 향후 발전 전망

- 동북 3성은 여전히 우수한 생산요소 조건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함.
- 연구개발 인력, 엔지니어, 숙련 노동력이 우수하고 기계, 설비제조 능력이 뛰어나며 교통환경이나 수출환경도 매우 좋음.
- 그러나 동북 공업기지의 진흥이라는 기치 아래 또다시 비교우위를 고려하지 않은 추월전략을 실시할 경우, 자생력 없는 기업 양산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결과가 될 것임.
- 동북 지역의 진흥은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자생능력 부족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비교우위를 중시하는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음. (***)